

2021년 3월 2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산업정책과 과 장 이시혜(044-201-2111), 사무관 김석재(2118) / 제공일: 3월 23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식품업계 간담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 [중앙일보 3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이달 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최근 국제곡물가 인상 등 기업여건 악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였음
 - 주요 건의 및 애로 사항 :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화물컨테이너 예약 곤란, 수입곡물 등 관세 인하 등 기업부담 감소방안
- 3월 23일 중앙일보 B2면 <정부는 왜 식품업계 10곳 임원을 불렀을까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초 식품업계 고위관계자 10여명을 불러 가격인상을 자제하라는 협조요청
- 식품업계 관계자는 “말이 협조요청이지 실제로는 제품값을 올리지 말라”는 경고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정부가 식품업계 고위관계자에게 제품값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- 지난 3.8일(월)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주요 식품기업과 개최한 간담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운 여건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음
 -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화물컨터이너 예약의 어려움, 국제곡물가 인상애 따른 관세 인하, 정부 구매 조기 실시 등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였음
- 참석 기업과 정부는 주기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,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